기획특집 2 – 현장에서 선 여성연구자

칠레의 자유연애와 모계중심 가족주의

조 경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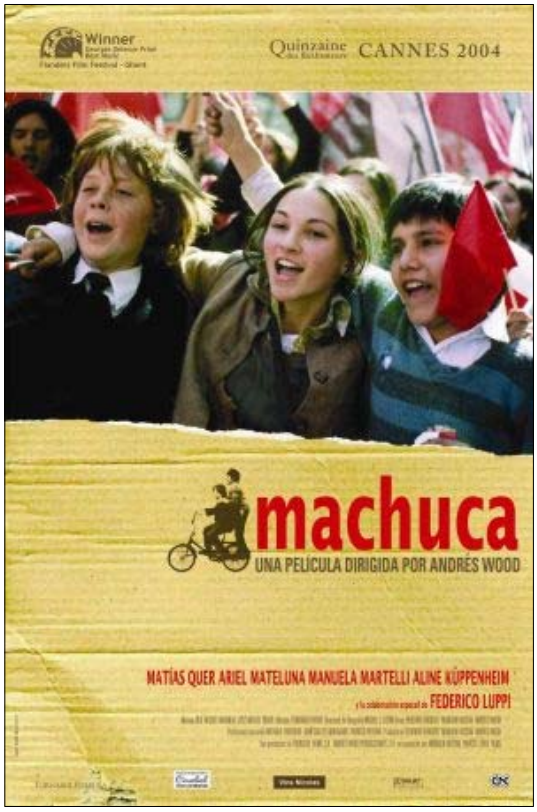
"젊은 입술들의 뒤범벅, 칠레에 성 반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3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칠레의 청소년들 사이에 일종의 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였다. 14~18세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관행이 현재 뜨고 있다는 것인데,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나이트클럽이나 파티에서 격렬하게 애무·페팅·키스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폰세아르(poncear)라는 속어가 유행하고 있고, 그 관행도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폰세아르의 의미를 완전히 포착하는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아이들과 많이 키스하고 애무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의 감수성으로도 폰세아르를 한 단어로 이해하고 설명하기란 어렵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인용된 어른들의 우려와 기자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폰세아르를 위험하고도 끔찍한 관행으로 보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나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니, 이것을 지금 알았나? 이게 뭐가 그리 대수롭다고?"

칠레 북부도시 이키케(Iquique)에서 현장조사를 함께 했던 미국인 친구 역시 이 기사를 보고, "용어가 생겼다는 점만 빼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 폰세아르라는 관행은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과거에도 존재했

는데, 현재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칠레 사람들의 자유연애에 대한 열정과 본능적 욕구의 분출이다. 나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면 믿지 않고 감각이 둔해 '형광등'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지만, 칠레에 갈 때마다 은근히 떠돌아다니는 희롱의 잔잔한 파장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성적 에너지는 그야말로 거추장스럽고,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다(그것이 꼭 나를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원래 열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문화적 고정관념 같아 싫었고, 사랑이나 열정 때문이라면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용서해주는 선택적 관대함이 짜증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칠레에 머무는 동안 깨달은 바가 있다면, 칠레와 칠레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성적 기운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해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사모아 청소년들의 자유연애기를 추적했으나, 칠레 연구자 중 연애행각을 연구하러 가는 사람은 없었다.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한 나라에서, 혹독한 군부독재의 나라로, 다시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 주목 받는 칠레였기에, 칠레인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이란 상대적으로 시시하고, 심지어 경박한 주제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칠레에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성문화의 차이이다. 낯선 곳에서 만



칠레의 영화감독 안드레스 우드(Andrés Wood)의 2004년 작품 《마추카 Machuca》의 포스터. 1973년 전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성장영화이기도 하다. 부유한 집안의 곤살로(좌) 학교에 빈민촌의 아이 마추카(우)가 전학 온다. 둘은 학교를 중퇴하고 시위장에서 깃발을 파는 실바나(중)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 영화에서 실바나는 연유 한 캔을 입에 머금고 한 번은 곤살로와 입을 맞추고, 또 한 번은 마추카와 입을 맞추면서 나눠먹는 장면이 나온다. 혼란한 시기였지만, 그때는 그랬을 것도 같다.

난 '나'는 성적으로 대단히 경직되고도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나는 마이클 타우시그(Michael Taussig)처럼 몸까지 내맡기는 체험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고, 결국 머리로 접근해서 성에 대한 태도와 관행이 구체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데 그쳤다. 결혼한 몸으로 현장조사를 가서 '참여'는 못하고 '관찰'만 하고 온 셈이다. 다행이라면 일상적으로 만나는 식구들의 희로애락에서 칠레의 성과 사랑, 가족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어, 그 이야기를 여기에 전하고자 한다.

칠레 사회의 개방적인 성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 모두가 대담하게 애정 표시를 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학교가 파하는 오후가 되면 시내 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중학생 커플이 벤치에 앉아, 이 세상에 오로지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껴안고 깊은 키스를 나눈다. 주말 해변은 커플들이 선호하는 데이트 장소인데, 서로 몸에 오일을 발라주고 키스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사막 지역이

라 이키케 해변은 햇볕이 뜨거운데, 얼굴을 더욱 화끈거리게 만든다. 일상적으로도 남녀 모두 성적인 매력을 과감하게 뽐내고 있었다. 사이즈를 막론하고 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터질 듯한 청바지와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은 10~50대 여성들, 가슴의 털을 슬쩍 보여주기 위해 셔츠 단추를 세 개쯤 풀어헤치고 코를 찌르는 향수를 바른 남성들 때문에 처음에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일부러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 적도 있었다. 이런 반응도 오래 가지 않았는데, 이곳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몸을 편하게 대하고, 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경직성도 조금씩 풀렸다.

그런 성적 에너지가 초래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의 삶에서, 관계에서 드러났다. 여기서 내가 머무르던 하숙집 주인 내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좋은 예이기도 하지만, 주인아주머니가 자신의 인생스토리를 꼭 써달라고 해서 이 기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칠레 사람들은 저녁식사를 차와 빵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이는 영국인이 남기고 간 티타임이 변형되어 정착된 것이다. “우리 차 마실까?”라는 제안으로 시작되는 늦은 저녁 티타임에 나는 하숙집 주인 내외인 베로니카(Verónica)와 마리오(Mario)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의 인생사를 자주 들었다. 지금은 50대 중반인 그들에게 나와 동갑인 큰아들과 2000년도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작은 아들이 있었다. 나와 베로니카의 나이 차가 열일곱 살이었으니, 열일곱에 큰 아들을 낳은 셈이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라고 물었더니, 베로니카는 “그 때 난 배가 불렀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베로니카는 열여섯 살에 마리오를 만났다고 한다. 이키케는 지금도 큰 도시는 아니어서 웬만하면 서로가 누구인지 모두 알고

예나 지금이나 선남선녀가 해가 진 후 선선한 저녁시간에 나와 광장의 조명 아래로 산책을 하면서 서로를 '찍는' 곳. 반가톨릭 세력이 컸던 이키케의 중앙광장인 플라사 프라트(Plaza Prat)에는 성당이 없고 대신 시립극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중앙에 보이는 것은 시계탑.

지내지만, 프랑스의 제도를 따르던 칠레의 교육시스템은 여학교와 남학교를 따로 두고 성별에 따라 다른 학교를 다니게 했다. 그 당시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이키케의 중앙광장 플라사 프라트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는 척하면서, 여학생들은 원모양의 광장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남학생들은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서로 마주치고 상대방을 '찍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면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 극장을 가기도 하고,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가기도 했으며, 운이 좋아서 차나 오토바이가 생기면 세간의 눈을 피해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당시 베로니카는 이키케 여왕선발대회의 후보로 신문에 사진이 실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미인이었다. 그때만 해도 여왕 후보들은 이키케의 내로라하는 집안의 규수들만 출전했는데, 이는 피부가 희고, 머리카락과 눈동자의 색깔이 옅어야 공주대접을 받는 칠레의 오래된 인종주의적 성향 때문이기도 했다. 베로니카는 이키케의 엘리트 출신은 아니었지만(그의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였다), 금발에 하늘색 눈동자를 지닌 미인이었다. 마리오는 그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마르코 칠레나(MARCO Chilena) 조선소 이키케 지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마리오는 이키케의 중산층 출신으로 일류 초등학교인 돈 보스코(Liceo Don Bosco)를 다녔고, 조선소에 취직한 후에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살 정도로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 마리오는 필리핀계 조부와 스페인계 조모 덕에 외모가 이국적이면서도 돋보였다고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 선남선녀가 만나 아이가 생기자 결혼하게 된 것이다.

사춘기 때 맺어진 백년가약을 영어로 퍼피러브(puppy love)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릴 때는 앙증맞게 귀여운 강아지들처럼 사랑을 속삭이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성인이 된 배우자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베로니카와 마리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여성편력이 심했던 마리오는 자주 외도를 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베로니카는 같이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평생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이제는 거의 60이 되어가고 있었던 마리오였지만, 여자들은 여전히 그를 흠모했고, 그 역시 그런 관심과 대접이 싫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베로니카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집에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왔다. 신랑은 이키케에서 내륙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구리광산 엘 콜로라도(El Colorado)의 엔지

니어였다. 신부는 성격이 활달한, 다리가 긴 장신의 칠레의 전형적 미인이었고, 나이는 23살이었다. 이키케 사람들은 구리광산 근무자들을 지프차의 사륜구동을 빗대어 4x4(cuatro por cuatro)라고 불렀는데, 나흘은 광산에 근무하면서 직원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흘은 이키케에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쉬는 근무체제이기 때문이다. 칠레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내가 현장조사에서 속도를 내고 있을 무렵, 건너편 집 신부는 점점 생기를 잃고, 따분해 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저녁에 평소보다 집에 일찍 돌아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오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다. 뜻밖에 나와 마주친 마리오는 평소 같았으면 능청을 떨며 "네게 주는 선물이야"라고 했을 법도 한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꽃인 듯싶었다. 주인 내외 사랑싸움에 휘말리면 안 될 것 같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꽃은 사라졌는데, 아마도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져 운명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점심을 먹고(이키케 사람들은 점심을 꼭 집에서 먹는다) 시내로 나가던 중, 수첩을 두고 나왔는지라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리오가 앞집 색시를 차에 태우고 막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마리오는 저녁 때 차를 마시면서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내 눈치를 살폈다. 행여나 엄마이자 친구 같은 베로니카에게 일러바칠 것을 걱정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옆집 아주머니가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베로니카에게 알리고 말았다.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옆집 아주머니가 현재 직장이 없어 집에서 많이 지내던 마리오가 자주 외출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집은 그날부터 일주일간 매우 시끄러웠고, 앞집의 새색시는 장기간 남쪽의 고향에 다

녀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날 이후로 베로니카는 그간 겪었던 마음고생을 봇물 터지듯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더불어 나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인 것은 내가 아들의 친구이고, 기혼자인데다가 동양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동양여성이 칠레여자와 달리, 정절을 중시하고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칠레인의 동양여성에 대한 시각이 이러하다는 사실도 당황스러웠지만, 그간 내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베로니카는 이 나라 칠레에서는 결혼을 해도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밀하게 사교를 하고 지내는 만남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절제를 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다고 했다. 경계를 허물고 노는 '위험한' 모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저녁 티타임에 식탁에 둘러앉은 베로니카, 마리오, 나. 친딸 이상으로 나를 정겹게 대해주었던 두 사람의 인생사와 가족사를 거의 매일 들었던 자리이다. 이 날은 내 생일이라 베로니카가 케이크를 준비해주었다.

그런 모임을 두고 딱히 정해놓은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어의 피에스타(fiesta)는 파티(party)라는 뜻이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만나는 사교의 자리가 굳이 피에스타처럼 조직적이고 목적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모임에 대한 귀띔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조니네 집에서 모일 건데, 거기서 볼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마리오의 사촌동생인 나니(Naní)와 자유무역지대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던 그 남편 조니(Johnny)네 집에서 주말에 이런 모임이 자주 있었는데, 친지와 친구들, 그

리고 자녀들의 친구들도 함께 모여 얘기하고, 술 먹고, 춤을 추고, 기타를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엔리케(Enrique)가 오는 날이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리였다. 나 역시 베로니카와 마리오의 딸 자격으로 여러 번 이 자리에 참여했고, 함께 여흥을 즐기기도 했다. 중학생부터 여든 노인이 함께 노는 그런 자리였다.

이키케의 구시가지 쪽으로 가면 모든 건물이 나무로 되어 있다. 보존명목으로 깨끗하게 닦여진 건물 몇 개만 빼고 대부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이 집은 겉에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유한 집은 결코 아니지만, 안에 있는 커플은 행복해 보인다.

한번은 나니의 딸, 실바나(Silvana)의 친구가 놀러 와서 실바나의 이모부격인 이그나시오(Ignacio)에게 찰싹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나이차가 30살이 넘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반의 파트너인 나니의 여동생 올가(Olga)가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베로니카 말에 의하면, 그 같은 모임에 가끔 젊고 예쁜 불청객이 등장하여 남자들의 혼을 빼놓고 간다고 했다. 피노체트 쿠데타 직후 브라질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춤에 통달한 마리오 역시 이런 아가씨들에게 삼바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서로의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비벼댔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일찍부터 이런 놀이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는다. 베로니카의 둘째 아들 폴리(Poly) 역시 친구들을 집에 불러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헉헉거리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계단 밑에서 여자아이를 바꿔가며 입을 맞추고 서로 더듬는 것을 여러 번 본지라, 폰세아르가 굳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내가 떠날 때 즈음해서 18살밖에 안 된 나니의 딸 실바나가 임신을 했다. 혈압이 오른 나

니는 우리 집에 와서 한참 하소연을 하고 갔다. 그런데 결혼은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구구절절 칠레 사람들의 연애행각을 늘어놓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런 사례가 예외적이지도 않으며, 내가 이키케에서 만난 사람들의 계층과 출신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성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다른 상대를 만나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고 있어 가족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에서 크게 되는데,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마치스모적인 칠레 사회가 사실상은 모계중심 사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베로니카가 그런 마리오와 근 40년을 함께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간 칠레에서 이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칠레는 가톨릭 국가로서, 2004년에야 이혼을 합법화한 나라이다. 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부양 의무를 둘러싼 공방을 중재할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못 이긴 척하고 참으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결혼을 무효화시켜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는 관행이 오랫동안 성행했다.

칠레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처음 결혼했던 배우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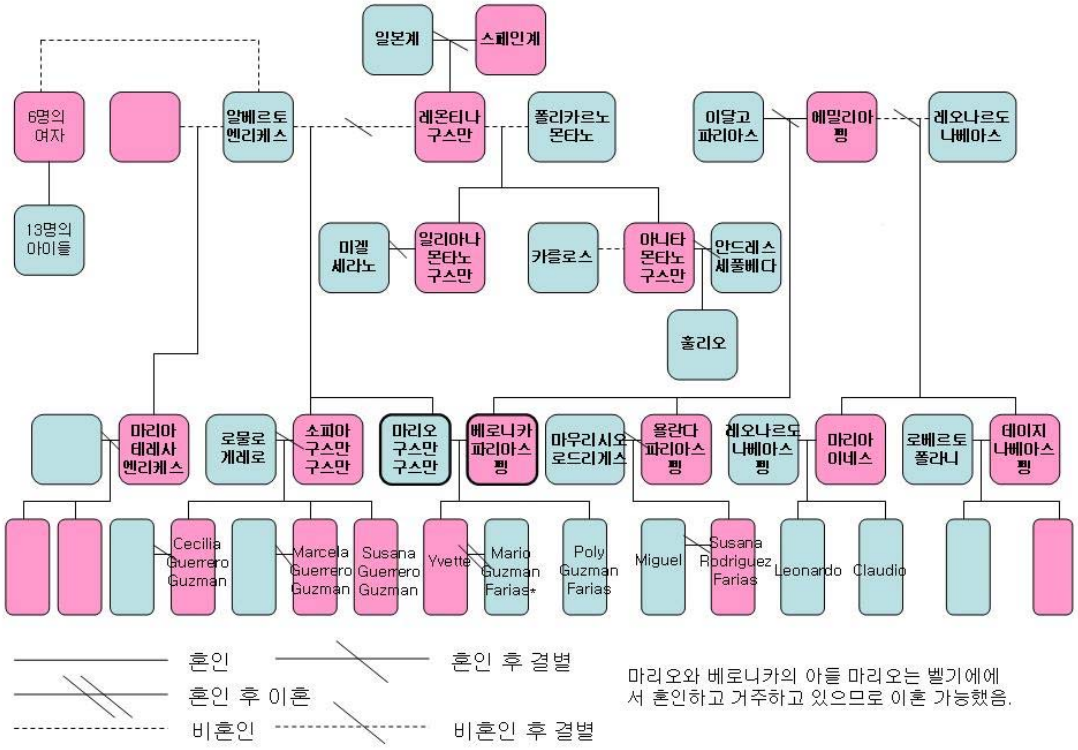
1) 참고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을 스페인어로 'separar'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별거'로 번역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별거는 영구한 것으로 생각되기보다는 임시적인 것이며, 이혼을 보류하고 가능하면 결혼상태를 유지하여 가족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칠레에서 'separar'는 이혼 대신에 부부가 헤어져서 소식을 끊고 남남이 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별거'라는 단어 대신에 '헤어지다', '헤어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생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자란 탓에 “헤어져 혼자 사는 애 딸린 여자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되뇌었다. 칠레의 엘리트가 외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상류사회에서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촌스럽고 수치스러운, 소위 계급이 낮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하는 관행으로 규정해서, 계급차별의 기제로 작동하는 면도 없지 않다. 기품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같은 가치관을 내면화한 베로니카는 “품위 없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베로니카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벅차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로니카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모들의 손에서 컸는데, 일찍이 아버지와 의붓아버지, 할아버지는 모두 가계와 자식들을 여자들에게 떠넘기고 유유히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란 베로니카는 바다낚시를 나가서 맨손으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자녀들의 심리적 ·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가정을 끝까지 지키리라는 다짐을 여러 번 했던 것이다.

물론 베로니카는 칠레에서 예외적인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신물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산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 남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혼제도가 없어서 부양의 의무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의무도 없어서 남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내키는 대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으면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이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자녀를 낳고, 그 사람마저 떠나면 그 자식을 거두는 일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마리오 역시 다른 뭇 남자들처럼 가정을 떠나 새 살

림을 차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파기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가 안겨준 서러움과 분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정말로 여성편력만 아니면 마리오는 칠레에서 보기 드문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그렇게 오랜 풍파를 거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커플은 그 확대가족에서도 흔치 않았다. 베로니카와 마리오의 가족사를 듣다 보면, 가계도를 그리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어떻게 몇 촌을 이루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마리오와 베로니카의 가계도

여기서부터는 그림에 나오는 가계도를 참조하는 것이 독자에

게도 도움이 될 듯하다. 베로니카의 어머니 도냐 에밀리아(Doña Emilia)는 네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 두 자녀는 공식적으로 혼인한 남편과 함께 낳았고, 그가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나 두 명을 더 낳았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가족은 성이 달랐다. 베로니카와 욜란다(Yolanda)의 성은 파리아스 펭(Farías Pfeng)이고, 레오나르도(Leonardo)와 데이지(Daisy)의 성은 나베아스 펭(Naveas Pfeng)이었다. 나는 이들이 처음에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이키케의 크고 작은 행사의 사회를 맡아보던 레오나르도가 신문에 나와 이름을 본 후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사실상 펭 가족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텐데,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면서 가족이 똘똘 뭉쳐 화목하게 서로 위해주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로니카의 경우처럼 가족이 모계중심으로 지탱되는 경우가 흔했다. 마리오의 경우만 해도 그랬다. 마리오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마리오 알베르토 구스만 구스만(Mario Alberto Guzmán Guzmán)이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이름-중간 이름-아버지의 성씨-어머니의 성씨" 순서로 쓰는데, 어머니의 성이 두 번 들어간 셈이다. 초석광산의 간부였던 아버지 알베르토 엔리케스(Alberto Henr quez)가 어머니와 공식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살림을 차렸던 탓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두 자녀를 낳고선 자기 자식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마리오의 어머니 레온티나(Leóntina)는 광산의 사무 직원 폴리카르포 몬타뇨(Policarpo Montaño)를 만나 두 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이들 부부는 레온티나가 세상을 뜰 때까지 서로를 매우 아껴주면서 산 잉꼬부부였다고 한다. 마리오는 자기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의붓아버지의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어주기도 했다.

베로니카의 큰 언니 욜란다는 결혼 직후 남편과 헤어져 간호

레온티나 부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그의 동반자 돈 폴리카르포가 만들어준 내륙 팜파(초석 사막지대)의 폐광촌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에 있는 묘소. 주위의 묘는 거의 모두 1920년대의 묘들이다. 들어가는 입구에 돈 폴리카르포는 간판을 붙여놓았는데, "이 성스러운 묘소를 방문하는 자에겐 복을, 묘소를 파괴하거나 훔치는 자에겐 저주를"이라는 문구가 있다. 도냐 레온티나와 돈 폴리카르포는 혼인으로 맺어진 커플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한다.

사로 일하면서 딸 수산나(Susana)를 혼자 키웠는데, 수산나 역시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현재 남편과 헤어져 살고 있었다. 수산나는 대학도 나오고 자유무역지대에서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받는 사무원으로 일할 만큼 능력 있는 여성이지만, 베로니카는 조카가 남자를 보는 눈이 없는 헛똑똑이라고 한탄하면서 혀를 끌끌 찼다. 마리오의 누나 역시 남편과 세 명의 딸을 두고 헤어진 상태였는데, 그 둘째 딸도 현재 남편과 헤어져 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마리오의 막내 누이동생은 군의관이었는데, 아들의 아버지인 첫 남편과 헤어지고, 새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16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한번은 산티아고에서 마리오의 여동생이 딸과 함께 올라온다고 해서 마리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산티아고에 사는 동생도 있었나?" 싶어서 물었더니,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동생을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황당하고도 기적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다. 여름철이 되면 산티아고에서 이키케의 해변으로 놀러오는 관광객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해 놀러온 모녀가 마리오의 큰누나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나갔다고 했다. 그 이름이 마리아 테레사 엔리케스 차콘(Maria

Teresa Henríquez Chacón)이라는 것에서 어쩌면 아버지 가족과 관련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은 긴장해서 만났다고 한다. 만나보니, 둘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었다. 마리아 테레사의 경우, 아버지가 그 어머니와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그 성씨를 따를 수 있게 했다. 이 동생으로부터 마리오는 아버지가 7명의 여성과 21명의 자녀를 낳았었다는 얘기를 들어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동생 역시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남편과 헤어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큰 딸 라우라(Laura)는 칠레의 대표적인 축구선수 이반 사모라노(Iván Zamorano)의 오랜 연인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키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20세기 초 칠레 작가 니코메데스 구스만(Nicomedes Guzmán)은 칠레북부, 이키케 주변의 초석광산 노동자를 등장시키는 소설을 여럿 썼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초석광부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혼을 가진 남성다움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착취를 당하면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고귀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무수한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고도 훌쩍 떠나버리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키케의 경제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남자들이 이주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클루벅(Thomas Klubock)의 엘 테니엔테 구리광산 노동자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20세기 초반까지 칠레의 노동계급은 합법적인 가족을 이루어 살지는 않았다. 그런 모습에 미국 경영자들이 경악하여, 광산 내부에 교육장을 만들어 칠레의 노동자를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그 주위를 맴돌던 허드렛일을 하거나 몸을 팔던 여자들을 '내조를 하는 현모양처'로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대거 실시하고 미국의 핵가족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칠레의 상류

베로니카의 집 뒷뜰에 모인 친척들. 주말에 늦은 9시에 이렇게 다과를 내놓고 시작하는 모임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한다. 베로니카 좌측으로부터, 돈 이그나시오, 그의 동생 돈 페드로, 마리오의 사촌동생이자 이그나시오의 파트너인 올가, 베로니카의 언니 욜란다, 등을 보이는 분은 베로니카의 어머니 에밀리아, 그리고 그 옆에는 베로니카의 조카딸들과 아들 폴리

층에서는, 이사벨 아엔데가 『상상된 나의 조국 Mi País Inventado』에 썼듯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외할아버지의 확실한 '빽'으로 부모의 결혼이 무효화되었던 것처럼, 진정 부부가 헤어지고자 할 때 변호사를 사고 구실을 만들어서 결혼을 무효화시고, 겉으로 다시 화려한 싱글로 변신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무효화시키면, 아이들은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혼외자식으로 정리되었다.

칠레에 2004년도부터 이혼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헤어지는" 관행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 이혼하는 커플도 많이 생기겠지만, 결혼하는 인구도 적어질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남자가 부양의 의무가 전혀 없어서 결국 여자들이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모계중심의 가족주의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모계중심의 가족주의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칠레의 뿌리 깊은 남성중심주의가 여성에게 가족을 떠맡기고, 나아가서 이 모계중심의 가족을 주변화시킨 셈이다. 이제는 남자들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된다면, 자녀를 남편이 거두거나 양육비를 분담하고, 이혼 자체를 보다 더 신중하

2006년에 칠레의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된 중도좌파의 미첼 바첼레트. 산티아고 교통난 해소 프로젝트 실패 이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으나 지금의 칠레를 이끌 사람으로 바첼레트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 그 쪽 학자들의 평이다. 1973년 쿠데타 때 공군장교였던 아버지가 고문으로 사망했지만, 바첼레트는 보복 정치를 하지도 않고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피지도 않는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외부모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칠레의 혼인제도와 가족법에 큰 관심을 보여온 칠레의 대표적인 수퍼우먼이기도 하다.

게 생각하는 관행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칠레에 이혼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전 대통령이 그 부정적인 사회적 여파를 통감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본부인과 헤어져 새로운 파트너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같은 정당 출신으로 라고스의 뒤를 이은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칠레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본인도 전남편과 헤어져 사는 외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칠레여성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족제도의 부당함을 직접 체험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가 사랑과 연애에 틀을 지워주게 된다면, 칠레의 자유분방한 성의 기운은 조금 가실 것인가? 과연 폰세아르와 같은 연애행각이 없어질 것인가? 실바나가 임신을 하고, 매년 10대 미혼모가가 40,000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현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런 성적 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지는 제도적 통제가 언젠가 막스 베버가 말한 철장이 되어 폰세아르가 사라진다면, 칠레는 더 이상 칠레 같지 않을 것 같다.

마가렛 미드가 사모아의 자유분방한 청소년에서 해방감을 느낀 것처럼, 나 역시 본능과 감정에 그토록 충실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만큼 대담하고 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던 한국인 사장님도 그런 칠레인 직원을 두고, "누가 더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일 년 내내 장사하느라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쟤네들은 주말만 되면 먹고 마시고, 눈 맞으면 같이 자고, 애가 애를 낳으면 좋다고 하고…" 하면서 자신은 인생을 헛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푸념했다. 결국에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칠레의 연애행각이 어떻게 변형되어 갈지, 그 폐해가 과연 줄어들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발산을 막기 위해 구속복을 입히는 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는 이제는 나도 위험지대 바깥에서 자유연애를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실제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성의 기운이 돌지 않는 칠레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칠레가 나는 가끔 그리워진다.□

조경진 – 한국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